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31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342장(새찬송가 543장)

“누가복음 12장 22절~31절 강해 설교”

을 경외하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을,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뜻은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신앙적으로 동일한 신분의 사람에 대한 호칭입니다.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도다운 생활 방식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관한 교훈입니다.

첫째, 모든 사물에 경중(輕重)을 판단하고 정하라는 교훈입니다.

22절과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귀중하고 덜 귀중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덜 중한 것에 매달려 더 중한 것을 상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숨과 몸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자기 목숨은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흉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이 어떻게 유린당하는 가를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고 무자비하게 목숨을 앗아가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북한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어도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더욱이 사리사욕을 위하여 공산당과 독재자를 지원하는 자들은 인면수심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과 몸을 훼손하고 심지어 존속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더 흉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영혼보다 더 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기더라도 영혼이 멸망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음식과 옷과 웃도 중합니다. 그러나 음식과 옷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면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영생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부른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적절하고 합당한 호칭이므로 교회가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지런하게 행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입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

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니.” 하였고,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여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등지에 앉아서 즐기고 있는 새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공중의 새는 부지런하게 날갯짓을 하면서 먹이를 구합니다. 화병에 꽂아 놓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 아니라 들의 백합화는 흙에 뿌리를 박고 비바람에 부대끼면서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사람을 향해 충고하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4절에는 “**문짝이 돌져 귀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하였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사람마다 신체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의 수면은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은 도리어 건강에 나쁩니다. 게을러서 늦도록 일어나지 않고 마치 문짝이 돌져귀를 따라서 돌아가듯 침대에서 뒹구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항상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있지도 아닌 한 것을 마치 있는 사실인 것처럼 과장하여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대비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돈의 단위로서 한 달란트는 약 6천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신약시대의 로마 화페로는 약 6천 데나리온이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노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우리 돈으로 6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 두고 빈둥대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를 남겨 갈증을 가지고 와서 주인께 드렸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 두었던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리면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이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지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주기를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 쫓으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주인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리해 봅시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 역시 바로 가서 장사하였는데 그만 여의치 않게 손실을 보게 되어 반 달란트만 주인에게 돌려드리게 되었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주인이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을 한 내용을 보아서 그러합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되다.” 하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을 내어 바로 가서 최선을 다하여 장사했습니다. 이러한 처신에 대해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처신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하면 책망과 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빈둥거리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는 빈둥대는 사람이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노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놀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쫓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놀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잠 6:6~11) 하였습니다. 성도는 부지런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25절, 26절, 2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염려 근심은 건강과 행복을 해칩니다. 그런데 모든 염려가 다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익한 염려도 있습니다. 염려를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세상 염려’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경건하게 살기 위한 근심입니다. 주의 일을 위한 염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을 위하여 거룩한 염려를 한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회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고후 11:28,29) 그리고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그의 염려를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날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1~3).

경건한 생활을 위한 근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심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로 인하여 얻게 되

는 상급과 영광과 기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고 하신 것은 세상 일로 인한 염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되 염려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였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가올 내일에 대한 사려 깊은 준비와 대책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책임한 생활태도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엄청나게 귀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 그것을 위해 사소한 것을 배려하는 것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보석을 선물로 주는 분이 포장지를 아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무엇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성도들이 더 귀중합니다. 덜 귀중한 것을 돌보시는 분이 더 귀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실 리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을 돌보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지 않으실 리 만무합니다. 예수께서 “하물며 너희일가 보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하신 말씀을 성도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이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명하여 주십니다.

넷째, 모든 일에 순위를 정하라는 교훈입니다.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오직’으로 번역된 원어(플래)는 ‘오히려’ ‘보다 더’라는 의미로도 번역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낱말들은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라는 뜻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위를 확실하게 정하여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의 순위를 정하고 합니다. 쉬운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인지 힘든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살펴서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이성(理性)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성이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유다서에 기록되었기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행방하는도 또 저하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유 1:10) 하였습니다. 짐승에게는 이성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멸망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 만능주의, 이성 제일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의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더욱 놀라운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이성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인간

의 이성으로만 알고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가 됩니다.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림과 성도의 휴거와 부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사람의 이성만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을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문학 등으로 비평하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기사와 이적에 관한 부분을 신화로 규정하고 비신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신학, 신신학(新神學), 해방신학, 사신(死神)신학, 세속화신학, 토착화신학 등의 비성경적인 신학 사조가 교회를 잠식하고 성경적 믿음을 갖는 것을 훼방합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되어도 믿고, 이해가 안되어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② 재물(財物)보다 신앙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물질 만능주의, 물질 제일주의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많은 소유물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한 양과 소의 떼가 많고 노비도 많아지니 그들이 한 곳에 거처하기에는 곤란하여 헤어져 살기로 하였습니다. 롯은 목축에 유리한 요단 들을 택하여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생활을 고려하여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롯은 요단 들에 거처하다보니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신앙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신앙보다 재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향불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롯은 재물을 다 잃게 되었고 롯의 아내는 재물에 연연하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물이 신앙생활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③ 사람들의 뜻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수의 뜻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다수의 뜻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몰아야 합니다. 현실상황이나 다수의 주장과 뜻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동해야 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수의 요구와 의견을 존중하나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통하여 현실상황을 해석하고 백성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려고 애썼습니다. 군중의 외침과 원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의 관건은 우선순위의 결정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우선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본문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